

농진청, 스마트 로봇 방제기 개발

'과수원 농약 살포, 내게 맡겨라'

나무의 유무·모양

신속·정확하게 측정

살포량 최대 30% 절감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과수원 안에서 스스로 이동하며 나무의 유무와 모양을 신속·정확하게 측정해 농약을 살포하는 스마트 로봇 방제기를 개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방제기 개발로 농업인 특히 고령·여성 농업인의 과수 방제 작업 부담을 덜고, 일괄적으로 농약을 살포할 경우 발생하는 농약 과다 사용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개발한 방제기는 레이저 형태의 광원으로 물체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LiDAR를 사용해 3차원 공간상 과수 유무와 형태를 파악할 수 있다. 스피드 스프레이(SS7) 좌우에 전자 밸브를 구비한 분사 노즐을



농촌진흥청은 과수원 안에서 스스로 이동하며 나무의 유무와 모양을 신속·정확하게 측정해 농약을 살포하는 스마트 로봇 방제기를 개발했다.

장착한 뒤 LiDAR로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기적 신호를 보내 농약 살포량을 조절하게 된다.

또한, 지주 파이프 등 과수원 안 시설물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계해 불

필요한 부분에서 농약이 살포되는 것을 최소로 줄였다.

이 스마트 로봇 방제기는 GPS와 관성측정장치를 활용한 궤도형 자율주행 로봇에 탑재돼 과수 사이를 스스로

주행하면서 무인 방제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 방제기를 사용해 방제할 경우, 기존 SS기보다 약 20~30% 농약 살포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농진청은 이번에 개발한 스마트 로봇 방제기에 대해 산업재산권 출원 및 유무 관별을 통한 선택적 방제기 가능한 스마트 방제기(10-2019-0141140)을 완료했으며, 관련 업체에 기술을 이전해 실용화할 계획이다.

강금춘 스마트팜개발과장은 "과수 방제를 스마트 로봇 방제기가 대신한다면 일괄 살포 방식으로 인한 농약 낭비와 인근 농가 피해를 줄이고, 농약 노출에 따른 농업인의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에 필요한 다양한 지능형 농작업기를 개발해 농작업 편의성을 제공하고, 농업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지역인재 75% 이상 모집

전북은행, 하반기 채용 오늘부터 진행

AI 면접 도입·이공계 별도로 선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이 코로나19로 연기되었던 2020년도 하반기 신입행원 채용을 오늘부터 진행한다.

모집분야는 금융영업 및 금융공학으로 나뉘어지며, 금융공학분야는 ▲디지털·IT ▲통계 ▲이공계 분야로 구분해서 모집 예정으로, 특히 지역인재를 75% 이상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형 일정은 오늘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서류전형 및 필기전형(10월), 1·2차 면접전형 등을 거쳐 11월 초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필기전형과 면접전형 등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하되, 코로나19 확산여부에 따라 전형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또한 전북은행은 직무 전문성을 갖춘 실무형 인재를 선발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으로 특히, 처음으로 AI 면접 도입을 통한 채용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이공계 별도 선발이 이번 채용의 큰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전북은행 인사지원부 방극봉 부장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여건이 그 어느때보다 어렵지만 청년일자리 창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전북은행 창립 50주년을 넘어 100년 은행으로 첫발을 내딛는 올해 많은 인재들이 지원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모집요강 및 온라인 채용 설명회는 전북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추석 명절 특별운전자금 지원

전북은행, 내일부터... 신규 포함 총 3000억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도내 및 당행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9일부터 10월 23일까지 '추석 특별운전자금'을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신규 1,500억원, 만기연장 1,500억원으로 총 3,000억원이다. 지원대상은 상업어음할인 및 1년 이하 운전자금 대출로 신규 운전자금 및 기일이 도래한 중소기업대출 만기연장이자이다. 대출 금리는 거래여도 등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해 이자부담을 최소화했다.

이번 추석 특별운전자금 지원은 지속적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기부

진, 유동성 부족, 매출 감소에 따른 부족자금 결제, 종업원 명절 상여금 지급 등 일시적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지원함으로써 경기침체와 내수부진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와 금융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 기업에 양질의 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등 지역 경제 회복하고,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무진장축산농협

NH농협생보 연도대상 수상

무진장축산농협(송제근 조합장)이 제32회 NH농협생명보험 연도대상 사무소부분 대상을 수상했다.

송제근 조합장은 "고령화되는 조합원들의 노후를 위해 작년 치매보험을 널리 알린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점점 고령화 되어가는 조합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추진을 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농협생명 전북총국 이숙 총국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조합원 실익을 위해 노력하는 무진장축산농협의 연도대상 수상을 축하드린다"며 "올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업인과 조합원 실익에 도움이 되는 보험사업 추진에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주=전문선 기자



수해 피해복구 지원 위한 사랑의 선행기

전북농협(본부장 박성일)과 남원축협(조합장 강병우)은 7일 남원시 금지면에서 최근 폭우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선행기 144대(600만원 상당)를 전달하는 나눔축산 집중호우 피해농가 지원 상생협력 사업을 실시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은행권 최초 '디지털 NH운전자상해보험' 출시

NH농협은행 전북본부, 포스트코로나 시대 맞춰 언택트로 상품 제공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요)는 7일 은행권 최초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춰 고객중심의 언택트 상품으로 NH운전자상해보험을 출시했다.

NH운전자상해보험은 지난 3월 25일 어린이보험구역(스쿨존) 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가입자의 교통상해 사고보장은 물론,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처리에 필요한 ▲보험비용(3,000만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3,000만원) ▲변호사선임비용(500만원)을 약 2만원의 보험료로 1년간 보장받을 수 있다.

가입은 고객 중심의 편의성 제공을 위해 가입 나이를 만 19~75세로 가입을 확대했으며, 스마트뱅킹과 QR코드를 활용해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고 보험료는 NH포인트로도 결제가 가능하다.

한편 NH농협은행은 은행권 최초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험플랫폼을 지난

2019년 12월 19일 오픈했으며, 현재 저축(변액)보험 5종, 연금보험 6종, 보장성보험 14종 등 총 25종의 상품을 디지털보험으로 제공하고 고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부응하고 보험을 어려워하는 고객들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장기요 본부장은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부응하고 더욱 간편하게 접할 수 있는 금융상품 제공으로 향후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며, 다양한 상생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새만금개발청, 공유수면 개선 방안 마련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광활한 새만금 사업지역 내 공유수면의 합리적인 점·사용료 부과와 필요성을 제기하며 개선방안 마련에 나섰다.

현행 공유수면법은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점·사용 유형과 면적에 따라 점·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새만금 지역의 특성상 토지가격이 공유수면의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기 어려우며 목적과 여건이 동일한 점·사용에도 불구하고 위치별로 점·사용료 격차가 커 사업자 간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실례로 새만금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위치에 따라 인근 토지가격이 약 9배가량 차이가 발생해 일부 사업자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새만금청은 새만금 사업지역의 실정

에 맞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방안을 마련하고자 (재)한국부동산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 지난 3월 착수 보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이번 연구에서는 다양한 점·사용료 부과사례와 제도운용 현황 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산정방안을 마련하고 징수한 점·사용료의 새만금 재투자를 위한 관리체계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연구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청취와 기재부,해수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법제화 등 실질적인 이행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용욱 개발전략국장은 "새만금 지역의 실정에 맞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체계가 마련되면 사업자 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고 민간투자 촉진 등 새만금 개발 가속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호남지방통계청, 오늘부터

'2020년 가족실태조사 실시'

호남지방통계청(청장 이호석)에서는 표본가구 및 가구에 속한 만 12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오늘부터 18일까지 '2020년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한다.

'2020년 가족실태조사'는 1인 가구, 비혼동거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 실태를 파악해 향후 가족 정책의 방향성을 도출하고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여성가족부가 통계청에 의뢰해 실시하는 조사다.

이번 조사는 전국 846조사구, 1만998 표본가구(호남청 관내 151조사구, 1,963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조사 방법은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는 면접 조사 외에 언택트 시대에 맞춰 인터넷 조사(11일까지)와 자기기입식 조사도 병행해 실시한다.

/김윤상 기자



전기안전공사, 추석 앞두고

취약시설 특별 안전점검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조성완)가 다가올 추석 연휴(9월 30일~10월 4일) 동안 국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안전 특별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공사는 7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전통시장 4천여 개소를 포함, 병원과 백화점, 숙박시설, 노래연습장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1만2,000여 곳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특정 취약시설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을 펼치는 한편, 기간 중 태풍 수해 등 재난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상황근무 체제도 강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일선 현장 직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방역 수칙 교육을 통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도 한층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조성완 사장은 "감염병 확산으로 국민 불안감이 여는 때보다 높아진 만큼 안전하고 평온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자주 찾는 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주민이 직접 주도하는

'농촌 신활력플러스'

전북도 '진안고원 헬스푸드 플랫폼 구축' 등

농식품부, 대상지구로 20개소 신규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21년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대상지구로 20개소를 신규 선정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전북도에서는 '진안고원 헬스푸드산업 플랫폼 구축' 사업이 선정됐다.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100개 시·군을 선정하는 국가균형발전 기본계획 중 농업·농촌 분야 핵심사업으로, 2020년 현재까지 60개 시·군이 선정되어 있다.

이 사업은 향토자원 육성사업, 권역·마을 개발사업 등으로 마련한 지역자산과 민간조직을 활용해 지역특화산업을 고도화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지방분권 기조에 맞춰 지역(주민·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해, 지역별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자율적으로 조합해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선정된 시·군은 지역 주민의 주도적인 참여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지속성·공공성 확보를 위해 사회적경제 조직을 포함한 지역공동체의 참여율을 높이는 데 적극적으로 사전 준비가 충실한 시·군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농식품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농업정책에 대한 참여도(농발계획, 논 타작물재배), 균형발전을 위한 낙후도 등도 함께 고려해 평가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선정된 20개 시·군을 대상으로 중앙계획지원단(농촌계획, 산업, 관광, 지역역량 등

분야별 전문가)의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 시·군별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2024년까지 시·군별로 1년차 14억 원, 2~3년차 각각 21억원, 4년차 14억원으로, 4년간 총 70억원(국비 49, 지방비 2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송태복 지역개발과장은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농촌지역에 역량 있는 민간 활동가·조직들이 육성되고 지역의 특화산업 육성 및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자립성장 기반이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북서남상의, 행사비

정읍시에 보조금 반납

전북서남상공회의소(회장 김적우)가 코로나 19로 인해 매년 해오던 행사를 취소하고, 정읍시 보조금을 모두 반납했다.

상공회의소는 매년 11월 전후에 근로자들의 화합과 사기진작을 위해 모범근로자 산업시찰과 기업사랑 노사 한마당대회를 개최해 왔다.

하지만 올해에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발병되었고 안타깝게도 최근 재확산되어 정부에서도 추석명절 이동을 제한한 각자의 가정에서 지내도록 권고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므로 정부방침과 정읍시정에 협조하는 마음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마음으로 2020년 보조금 2건의 행사비 총 2,140만원을 정읍시에 반납했다.

/정읍=김대환 기자